

# 수소 · UAM · 우주산업 관련 주간정책 동향

## □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수소	중앙부처	- (해당 없음)
	지방자치단체	<p><b>[전라남도 부안군] 2027년까지 4백억 원 들여 수소도시 조성 (08.21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부안군은 2027년까지 예산 4백억 원을 들여 수소의 생산과 저장, 이송, 활용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</li> <li>- 이를 위해 수소도시 조성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어 구체적인 사업 방향과 세부 시설 계획 등을 논의</li> <li>- 부안군은 하서면 신재생에너지단지에 내년 상반기까지 예산 119억 원을 들여 국내 첫 상업용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도 조성</li> </ul>
		<p><b>[인천광역시] 남동산단에 현대차 수소하이테크센터 추진 (08.20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남동구 남동서로205번길 32 일대 대한상공회의소의 인천인력개발원 부지에 현대차 수소하이테크센터 설립을 검토</li> <li>- 현대차의 수소하이테크센터는 수소차 관련 고급 인력은 물론 전문 정비 시설을 갖춘 일종의 수소 모빌리티 기반시설</li> <li>- 시는 남동산단에 수소하이테크센터가 자리 잡으면 이를 중심으로 미래혁신성장 주력산업인 수소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연관 산업의 육성·발전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</li> </ul>
		<p><b>[대전광역시] 평촌산단 수소발전 무산, 전력자급 '제자리 걸음' (08.19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전시는 최근 기성동 주민위원회와 LS일렉트릭, SK가스, CNCITY에너지가 맺은 연료전지발전소 투자 및 업무협약을 해지하기로 결정</li> <li>- 앞서 이들은 기성동 지역에 40MW급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지난 6일 주민에게 사업 중지를 통보</li> <li>- 시는 발전소 건설 시 연간 32만M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고, 올해 상반기 수소입찰시장에 뛰어들면 전력자립도를 현재의 1.8%에서 5.1%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나, 사업자 측에서 경제성을 이유로 사업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을 중단</li> </ul>
중앙부처	- (해당 없음)	
UAM	지방자치단체	<p><b>[평택시] 'UAM 산업 워킹그룹' 발대..관산학연 전문가 15명 구성 (08.20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평택시는 20일 관·산·학·연 전문가로 구성된 'UAM 산업 워킹그룹 발대식'을 갖고 UAM 산업 생태계 조성에 착수</li> <li>- 실무단은 공공기관, 연구소, 학계, 기업체 등의 UAM 전문가 총 15명으로 구성됐으며 UAM 산업 생태계 조성에 자문과 제언하는 역할을 할 예정</li> <li>- 또한 △평택형 UAM 산업의 비전 및 추진 전략 수립 △평택형 UAM 네트워크</li> </ul>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UAM	지방자치단체	<p>구축 △UAM 기업 유치 △UAM 정부 공모과제 참여 등을 추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평택시는 UAM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내년에 ‘도심항공교통(UAM) 산업 육성 방안 연구용역’을 추진해 종합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</li> </ul>
우주	중앙부처	<p><b>[우주항공청] 인기 폭발이네, 우주항공청, 하반기 채용 경쟁률 9대 1 (08.20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우주항공청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접수 결과 65명 모집에 594명이 응시, 평균 경쟁률 9.1:1 기록</li> <li>- 직급별로 선임연구원(5급)은 9.6:1, 6급 연구원은 7.8:1, 7급 연구원은 14.8:1의 경쟁률</li> <li>- 전국 3개 권역에서 채용설명회 개최, 주요 업무와 채용 직위에 대해 구체적 설명 및 질의응답 진행</li> <li>- 9월 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예정, 최종 합격자는 11월 초 우주항공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</li> </ul>
		<p><b>[방위사업청] 방사청 지원, 세종·연세·한밭대서 국방·우주 분야 석사 학위자 첫 배출 (08.16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방위사업청 지원을 통해 국방·우주 분야 석사 학위자 11명 첫 배출</li> <li>- 세종대, 연세대, 한밭대에서 방위산업 계약학과 운영, 맞춤형 인력 양성</li> <li>- 세종대는 우주항공시스템공학과, 연세대는 우주국방융합협동과정, 한밭대는 국방우주공학과 개설</li> <li>- 각 대학은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, 졸업 후 방산기업에 취업 연계</li> <li>- 국방·우주 외에도 무인로봇·AI 분야에서도 석·박사 연구인력 양성 중, 10대 국방전략기술 인력양성 확대 계획</li> </ul>
	지방자치단체	- (해당 없음)

□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수소	국가기관	<p><b>[KOTRA] '탈석탄·탈러시아' 체코... "韓수소기업 유럽진출 거점으로 최적" (08.21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코트라)가 발표한 ‘체코 수소산업 동향과 진출 기회’ 보고서에 따르면 체코는 지난 2월 기준 정유·화학산업에서 연간 10만t의 수소를 생산</li> <li>- 체코에는 현대차, 넥센타이어, 두산스코다파워 등 한국 기업이 대거 진출해 있고, 한국은 미국·일본에 이은 3대 외국인투자국이자 비(非)EU권 국가 중에서도 미국·중국에 이어 3대 교역국</li> <li>- 수소산업 분야에서의 양해각서(MOU) 체결 등 양국 협력은 최근 3년 사이에만 10차례 넘게 진행</li> <li>- 코트라는 “산업경제 여건, 공급망 다변화 및 한국과의 협력 수요 등을 고려하면 체코는 한국 수소기업들의 유럽 진출에 유리하다”며 “관련 기업들이 수소 전문 국내의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 체코 기업과 협력하고, 유럽 수소시장 진출에 관심을 가질 때”라고 제언</li> </ul>
		<p><b>[KIST] 수소차 연료전지 촉매 백금, 값싼 철로 바꾸는 기술 개발 (08.16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KIST 수소연료전지연구센터 연구팀은 철-프탈로시아닌(질소와 탄소가 교차하는</li> </ul>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수소	국가기관	<p>화합물)과 그래핀 산화물을 이용해 짧은 시간 내 연료전지에 쓸 수 있는 철 기반 촉매를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그래핀은 탄소 원자가 육각형 벌집 모양으로 2차원(평면) 결정을 이룬 신소재</li> <li>- 연료전지는 촉매로 비싼 백금을 사용한다는 단점이 있는데, 그간 백금을 철로 대체하는 연구는 많았지만 기술적 난제가 대부분</li> </ul>
	지방기관	- (해당 없음)
UAM	국가기관	- (해당 없음)
	지방기관	<p><b>[고양연구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제시 (08.16)]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8월 16일, 고양연구원이 ‘고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’ 보고서를 발표함</li> <li>- 본 보고서는 GTX-A 노선의 2024년 하반기 개통, 도심항공교통(UAM) 수도권 2단계 실증사업에 김포공항-킨텍스 노선 선정 등 교통환경변화를 조사 연구</li> <li>-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대상지 선정, 대중교통거점(킨텍스역, 대화역), 도심항공교통(UAM) 버티포트(킨텍스), 주요 관광자원(일산호수공원)을 연결하는 시범운행지구 노선을 제안함</li> <li>-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확장은 장기적으로 고양경제자유구역, 일산테크노밸리, 도심항공교통(UAM) 실증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산업 생태계 조성 가능 견해</li> </ul>
우주	국가연구기관	<p><b>[한국지질자원연구원] 핵 달탐사선 다누리, 역대급 '감마선' 폭발 측정 성공 (08.20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한국 최초 달 탐사선 다누리호, 24억 광년 떨어진 감마선 폭발(GRB20221009A) 측정 성공</li> <li>- 감마선 폭발은 우주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 방출 현상 중 하나로, 금세기 가장 강력한 감마선 폭발로 기록</li> <li>- 다누리호 탑재 감마선분광기(KGRS), NASA 페르미 감마선 우주망원경과 유사한 연구 결과 도출</li> <li>- 연구팀, 달 표면의 원소지도 작성 및 우주탐사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연구 진행</li> </ul>
		<p><b>[우주항공청-한국항공우주연구원] 정지궤도 위성 '천리안 3호' 스페이스X와 발사용역 계약 (08.16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정지궤도 공공복합 통신위성 '천리안 3호' 발사를 위해 스페이스X와 발사용역 계약 체결</li> <li>- 천리안 3호는 2027년 하반기 발사 예정, 적도 상공 동경 128.2도에서 통신임무 수행 예정</li> <li>- 천리안 1호의 통신임무를 이어받아 재난재해 대비, 공공 위성통신서비스 제공, 홍수 등 수재해 감시 및 해양경찰과 항공기 안전 운항 지원 임무 수행</li> </ul>
		<p><b>[한국항공우주연구원-AP위성] 누리호 2차 발사 탑재된 '성능검증위성' 2년간 임무 완수 (08.16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22년 6월 21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에 탑재된 성능검증위성(PVSAT)이 2년간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료</li> <li>- 성능검증위성은 발사체 투입 성능 검증, 큐브위성 사출, 우주핵심기술 검증시험 등 주요 임무 수행</li> <li>- 국내 기업 AP위성이 개발하고 운영한 이 위성은 발사와 분리 과정에서의 진동 정보</li> </ul>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우주	국가연구기관	<p>제공 및 위성의 궤도 투입 성능을 확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성능검증위성의 성공적인 운영은 국내 우주개발 기술의 우주검증력과 기술 역량 강화에 기여</li> <li>- AP위성은 이번 성과를 통해 위성개발 전문회사로 발돋움할 기반을 구축</li> </ul> <p><b>[한국공학한림원-인도공학한림원] 지구 관측 위성 협력 방안 모색 (08.15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한국공학한림원과 인도공학한림원이 '지구 관측 위성 현황 및 협력 방안'을 주제로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</li> <li>- 워크숍에는 양국의 항공우주 전문가 12명이 발표자로 참여, 위성 기술 개발 및 협력 방안을 논의</li> <li>- 인도는 기상위성 'INSAT-3DS'를 정지궤도로 발사, 한국은 우주항공청 설립 후 위성 기술에 대한 관심 증가</li> <li>- 워크숍은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기후 변화, 재난 관리, 지속 가능한 발전, 환경 보호 등의 주제 발표로 진행</li> <li>- 양국 간 국방 및 무역 협력 증가에 따른 항공우주 분야 협력 가능성 확대</li> </ul>
		지방연구기관

□ 민간 및 기타(논문 등) 동향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수소	민간기업	<p><b>[CJ대한통운] “국내 최초 액화수소 운송” 수소물류 선도하는 CJ대한통운 (08.20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CJ대한통운이 지난 5월 독보적인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해 국내 최초로 액화수소 운송을 시작. 지난해 6월 기체수소 운송 사업에 진출한 데 이어 ‘수소 물류’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 것</li> <li>- 세계 최대 규모의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에서는 하루 90톤, 연 3만 톤에 달하는 액화수소를 생산하고, CJ대한통운은 특수 탱크 트레일러에 실려 전국 각지의 충전소로 이동</li> <li>- 현재의 인천 SK E&amp;S 액화수소 플랜트 물량을 40대까지 확대하고, 2027년에는 추가로 보령 플랜트에서 70여 대 정도를 운영할 예정</li> </ul> <p><b>[두산퓨얼셀] 한국남부발전과 수소 연료전지 유지·보수 체결 (08.20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두산퓨얼셀이 한국남부발전과 수소 연료전지 유지·보수 계약을 체결. 수소 발전 사업자인 유에이치파워로부터 1,0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지 일주일만의 신규 계약</li> <li>- 계약기간은 2034년 7월말까지 10년이고, 계약금액은 1,000억 원대로 추정</li> <li>- 두산퓨얼셀 관계자는 “자사가 주기를 납품하는 약 18MW(메가와트)급 연료전지 발전소에 대하여 10년 간 유지·보수 업무를 맡는 건” 이라고 설명</li> </ul>
		대학교
	해외	<p><b>[미국] 캘리포니아주, 미국 최초 수소 허브 출범 (08.19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미국 에너지부(DOE)와 재생가능한 청정 수소 에너지 시스템 연합(Alliance for Renewable Clean Hydrogen Energy Systems, ARCHES)은 미국 내 7개의 수소 허브 중 최초로 캘리포니아주 수소 허브가 공식 출범</li> </ul>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수소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ARCHES는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걸쳐 청정, 재생가능 수소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로 미 에너지부와 협약을 체결해 에너지부가 제공하는 최대 12억 달러, 공공 및 민간 자금 114억 달러를 포함해 총 126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확보했다고 발표</li> <li>-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내에서 수소 교통 분야를 선도</li> <li>- 세계 최초의 100% 무공해 수소 연료 전지로 구동되는 상업용 여객선 Sea Change가 운항 시작, 수소 전기식 에어택시 시제품이 523마일을 성공적으로 비행 등</li> </ul>
	해외	<p><b>[중국] 수소 자전기 확산에 힘 쏟는 중국 기업들 (08.16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재 중국의 최소 10여 개 도시에는 주민들을 위한 수소 공유 자전거가 도입</li> <li>- 수소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타기 편하면서도 에너지원 측면에서 리튬배터리식 전기 자전거보다 안전</li> <li>- 한 중국 회사는 수소 자전거가 차세대 대중교통의 핵심이 될 것으로 믿고 투자하고 있으며, 다른 기업들은 수소 산업의 발전을 장려하는 중국 정부의 국가적 정책 흐름에 편승해 사업을 진행</li> <li>- 그러나, 에너지 전문가들은 전기 자전거를 수소 자전거로 대체하는 게 과연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. 장거리용이 아닌 도심 내 자전거와 같이 완전히 다른 용도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</li> </ul>
	민간기업	- (해당 없음)
	대학교	<p><b>울산과학대, 차세대통신 기반 미래모빌리티 전문가 육성 교육 (08.22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울산과학대학교가 20~22일 사흘간 부산 코오롱 씨클라우드 호텔에서 ‘차세대 통신혁신융합사업단 NC모빌리티응용 교과목’ 교육 실시</li> <li>- 교육 프로그램은 차세대통신에 대한 최신 기술 동향 파악, 산업 적용 전망, 차세대통신과 IoT 기술의 활용 경험을 통한 기술 적용 능력 향상 등으로 구성</li> <li>- 울산과학대 차세대통신혁신융합대학사업단장은 “이번 교육을 통해 울산과학대학교 재학생들이 전기자동차, 자율주행차,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사회에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모빌리티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” 라고 밝힘</li> </ul>
UAM	해외	<p><b>[중국] 中, '저고도 하늘길' 개척 속도...5G 활용해 관제시스템 만든다 (08.19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국이 5G(5세대 이동통신)를 활용한 저고도 항공관제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음. 저고도 항공관제시스템은 도심항공교통(UAM)의 핵심 인프라시설 중 하나로 꼽힘</li> <li>- 8월 19일 상하이시 통신관리국은 최근 ‘상하이 정보통신산업의 저고도 스마트 네트워크 구축 가속화에 대한 지도의견’ 을 발표</li> <li>- 2026년 말까지 저고도 항공기의 경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저고도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 계획, 이에 따라 상하이는 향후 3년 동안 5G-A를 기반으로 한 저고도 네트워크 구축 범위를 늘려갈 계획</li> <li>- 상하이 외에도 중국 각 도시들은 저고도 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을 잇달아 발표. ①광둥성은 지난 5월 ‘광둥성 저고도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</li> </ul>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UAM	해외	<p>위한 행동계획' 을 발표, ②베이징은 저고도 네트워크·수직 이착륙장·수직이착륙기·무인항공기 등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과 브랜드 영향력을 갖춘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, ③기타 지역(선전, 주하이 등) 역시 저고도 관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국 민간항공국에 따르면 중국의 저고도 경제 규모는 2030년까지 2조 5,000억 위안, 2035년에는 3조 5,00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</li> </ul>
우주	민간기업	<p><b><u>[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] 하반기 이익구간 진입 기대...내년에 본격 성장 (08.20)</u>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, 올해 하반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 기대</li> <li>- KAI와 방산 부품생산 계약 체결, 글로벌 방산 수주 확대 전망</li> <li>- 올해 방산 수주액 700억원 돌파, 내년 본격적 성장 기대</li> <li>- 매출 성장 대비 투자 진행, 신규사업 투자를 통해 가파른 매출 증가 예상</li> <li>- 원가율 개선 및 미국 자회사의 호실적, 하반기 영업이익의 가능성 높아짐</li> </ul>
		<p><b><u>[텔레픽스] 자체 개발 위성 AI 프로세서 '테트라플렉스' 발사 성공·우주 헤리티지 확보 (08.19)</u>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텔레픽스, 자체 개발 위성 AI 프로세서 '테트라플렉스' 발사 성공</li> <li>- 스페이스X의 팔콘9 발사체에 실려 우주로 발사</li> <li>- 테트라플렉스, 위성에서 실시간 AI 처리 및 엣지 컴퓨팅 가능</li> <li>- 기존 위성 데이터 전송 방식보다 시간 및 비용 절감</li> <li>- 성능 검증 후 우주 궤도상 AI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공개 예정</li> <li>- 글로벌 우주 시장 진출 기반 확보</li> </ul>
		<p><b><u>[보잉] 우주미아 된 우주인들 . . .보잉의 굴욕 (08.17)</u>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보잉의 스타라이너 우주캡슐, 추진기 꺼짐 및 헬륨 가스 누출 등 결함 발생</li> <li>- ISS와 도킹 성공 후, 우주비행사들의 체류 기간이 예상보다 두 달로 늘어나 '우주미아' 상황 발생</li> <li>- NASA, 귀환 수단으로 스타라이너 또는 스페이스X의 우주선 활용 방안 검토 중</li> <li>- 스페이스X, 우주수송 및 민간 우주비행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과 및 확장 추진</li> </ul>
	<p><b><u>[스페이스X] 지구 극지 탐사용 유인 우주선 쏜다 (08.15)</u>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스페이스X가 지구 극지를 탐사할 유인 우주선 발사 계획을 발표, 우주가 아닌 지구 탐사를 위한 첫 유인 우주선 발사</li> <li>- 민간 극지탐사대 '프랩2' 가 크루 드래건에 탑승해 고도 425~450km 상공에서 남극과 북극을 비행 예정</li> <li>- 프랩2의 탐사대장은 암호화폐 사업가 출신 왕이며, 노르웨이, 오스트레일리아, 독일 출신의 극지 탐험가, 로봇 공학자, 영화 제작자가 참여</li> <li>- 탐사 중 오로라와 유사한 스티브(STEVE) 현상 연구 및 인체 엑스선 촬영 등을 수행</li> <li>- 우주선은 국제우주정거장 우주비행사 수송 임무에 사용된 '인듀런스' 를 개조한 것으로 예정</li> </ul>	
대학교	<p><b><u>[경희대학교] '132km' 거대한 달 구멍이에 조선 천문학자 '남병철' 이름 붙였다 (08.19)</u>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경희대 연구팀, 달 뒷면의 거대 충돌구에 '남병철 크레이터' 명명</li> <li>- 조선 천문학자 남병철 이름, 한국 최초로 달 충돌구에 부여된 사례</li> <li>- 국제천문연맹, 경희대 연구팀의 명명 신청 승인</li> <li>- 남병철 충돌구, 달 표면 자기장 변화 연구에 유용한 과학적 의미 있음</li> </ul>	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우주	대학교	- 한국의 달 궤도선 '다누리'가 추가적인 관측을 수행할 예정
	해외	<p><b>[영국] 우주공항서 로켓 엔진 시험 중 폭발·부상자 없어 (08.21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영국 스코틀랜드 최북단 우주공항에서 로켓 엔진 시험 중 폭발 발생</li> <li>- 독일 로켓 제조사가 올해 가을 첫 수직 로켓 발사를 앞두고 진행한 엔진 시험 중 사고 발생</li> <li>- 제조사는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, 시험 중 '이상 현상'이 원인이라고 발표</li> <li>- 사고 당시 로켓이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은 후 굉음과 함께 구조물이 검은 연기에 휩싸이는 장면이 목격됨</li> </ul> <p><b>[미국] 미 민간인 4명, 스페이스X 캡슐 타고 첫 우주유영 도전 (08.20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스페이스X의 우주캡슐 '드래건'이 민간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우고 26일 발사 예정</li> <li>- 이번 임무는 '폴라리스 던'으로 명명된 민간 우주비행 프로젝트의 첫 번째 비행</li> <li>- 이들은 최고 1,400km 높이의 타원형 궤도를 비행, 이는 국제우주정거장보다 3배 이상 높은 고도</li> <li>- 우주에서 약 닷새간 머물며 40여 가지 연구와 실험 수행</li> <li>- 가장 중요한 실험은 민간인의 우주유영(spacewalk)으로, 스페이스X가 개발한 우주복을 입고 700km 고도에서 우주 공간에 나가는 시도</li> </ul>

□ 기타(포럼, 세미나, 토론회 등)

주제	기관명	제목 및 주요내용	개최일자
수소	-	- (해당 없음)	-
UAM	-	- (해당 없음)	-
우주	-	- (해당 없음)	-

-끝-